



2023년 봄 · 200주년 기념 · 80호

박물관 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23년 봄 80호

- 04 | 『박물관사람들』 20주년을 맞이하여
- 05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08 | 매화를 그리다
- 12 | 왕의 책, 외규장각 의궤를 만나다
- 16 | 아이들과 함께한 문화재 수업
- 20 | 갈대, 진흙, 썬기문자
- 24 | 오늘도 그 미소를 보았다
- 27 | 나의 고향은 서울이다

박물관회 소식

- 30 |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안내
- 32 |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FM), 조선시대 나전함을 기증하다

숨은 전시

- 33 | 깔깔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기부회원 명단

발행일 2023년 3월 1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5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강지은, 이명수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람들』 20주년을 맞이하여

흐리고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동네 길가엔 울어들어 처음으로 화분을 파는 꽃장수가 나왔습니다. “앞 강에 살얼음은 언-제나 풀릴 거나 짐 실은 배가 저만큼 새벽안개 헤쳐 왔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봄이 스윽 옆에 와 있었습니니다.

20년 전 봄, 2003년 3월 15일에 『박물관사람들』 창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봄엔 20주년 기념으로 특별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창간호부터 10년 넘게 수고했던 1기 편집 회원들이 만든 10주년 기념 40호 특별호를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중 몇 명의 글도 거기에 실렸었답니다. 그때처럼 이번 80호를 기획 글이나 외부 칼럼 없이 여러 회원분의 글로 채워봤습니다.

나아가 이번 특별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회원 여러분의 글을 여기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박물관사람들』이 전시실에서, 강의실에서, 답사 여행 등에서 새로 알게 된 지식과 통찰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맺어서 함께 더 풍요로운 『박물관사람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편집부



자세히
예쁘다
보아야



나의 산책 장소이자 놀이터, 만남의 장소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야외전시장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다. 초봄이면 겨우내 미끈한 등허리를 보이던 나뭇가지에 하나씩 새순이 돋고, 땅속에서 숨 쉬고 있던 식물들이 새싹으로 다시 태어난다. 보신각종 앞 매화나무를 시작으로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 조팝나무, 철쭉 등 수많은 꽃이 차례차례 피어나서 소곤소곤, 재잘재잘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봄이 끝나갈 무렵엔 눈이라도 내린 듯 희디흰 잎의 산딸나무가 낮에도 밤에도 조명을 켜 듯이 환하다. 감나무와 모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을 보면, 무더운 여름을 힘들게 견뎌내고 결실을 맺은 나무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그렇게 몇 해를 지켜보니 어느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게 되고, 시기마다 변화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칠까봐 조바심이 나곤 한다.

박물관 야외전시장은 마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문인석文人石’처럼 변화무쌍하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은 사계절의 추위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 년 내내 한자리에서 나를 반겨준 한 쌍의 문인석이다.

‘조각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그리스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신화 속 신神들과 기독교의 여러 도상을 담은 하얗게 빛나는 대리석 조각상이다. ‘라오콘 군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베르니니의 ‘아폴로와 다프네’, 루벤스의 ‘페르세포네의 납치’처럼 대리석을 다듬어 역동적인 근육과 표정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바람이라도 한 점 불면 나부낄 것 같은 옷자락 표현의 섬세함 등에서 대가들의 손재주와 표현력에 감탄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포착해내는 관찰력에 놀라곤 한다.



우리나라 문인석은 조각 작품이라기보다는 그저 조선시대 묘의 장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는 문인석을 만나고부터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눈길 한 번 더 주게 되고, 그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럴 때마다 문인석이 매번 색다른 위로를 주곤 한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많은 위로가 된 이 한 쌍의 석물인 문인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석인石人은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석물을 대표하는 문인석文人石은 무덤을 지키기 위해 능묘陵墓 앞에 세우던 문관文官 모습의 석인石人이다. 보통 사대부 이상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 무덤을 만들면서 봉분 앞에 석상石床을 놓고, 그 앞쪽에 자리한 장명등長明燈 양쪽에 문인석 한 쌍을 마주 보도록 세운다. 머리 위 복두幘頭, 포袍로 불리는 옷, 허리띠엔 대帶, 손에는 홀笏, 가죽신인 화靴를 갖춘 공복을 착용한 백관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세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키, 얼굴의 크기와 표정, 옷 주름의 표현 등 시기나 지역에 따라 양식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제작된다. 왕릉이나 사대부 묘를 지키던 커다란 몸집의 문인석이 있고 평민의 묘를 지키는 수수한 것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신분 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른 미감이 반영되어 격식과 기교의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석물에 사용된 돌은 대부분 화강암이다. 나라마다 주로 사용하는 돌의 종류가 다른 것은 지질학적 요인이 가장 컸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며, 산지의 70%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리석이나 사암에 비해 단단하여 조각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료적 특성상 간결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외에 세워도 잘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문인석은 신체비례가 3~4등신으로 사실적인 재현은 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적인 표현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단단한 화강암의 재료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단단한 화강암은 정釘 자국이 남아서 정교한 세부묘사가 힘들다. 그러나 거칠지만 잔잔하게 남아 있는 정 자국은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단순미를 만들어낸다.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모든 돌은 잘 부러지는 특성이 있어서 문인석을 포함한 석인의 자세는 목을 움츠린 듯이 얼굴을 가슴에 붙이고, 손도 몸에 대고 있다. 목을 덮는 공복과 목을 움츠린 듯이 서 있는 모습에서 부러지는 돌의 특성을 보완하면서도 경건함과 공손함을 느낄 수 있다. 원석에 밑그림을 그리고 형태를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적인 입체감보다는 2차원적인 평면성을 강조하고 과감하게 단순화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독특한 인물상이 된다.

문인석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 석물 연구가 다른 문화재 연구 분야에 비해 확연히 부족하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석물의 시기별 변화는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는 인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기존 연구의 도움으로 문인석을 조사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다양한 석물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 조선 왕릉이나 국내의 다른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해서 만날 수 있을 석물에 대한 기대도 해본다.

박물관 산책길에서 항상 만나는 문인석 한 쌍은 매번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어 자주 접하고, 많이 관찰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그것이 나만의 진정한 예술품이 되는 것이 아닐까? 애정은 만남의 시간과 반복, 빈도에 비례한다. 오늘도 내 발길은 박물관으로 향한다. 이제 친구가 된 문인석과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

유주현 회원





장옥규, <청매>

매 화 를 그리 다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오만 원권 지폐 뒷면에는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듯이 수직으로 가지를 뽀은 나무 그림이 있다. 가늘게 솟은 맨 위 가지 옆으로 옆게 달무리 진 둥근달, 그 달의 부름에 이끌린 듯이 힘차게 뽀은 새 가지들에 맺힌 매화가 벽찬 감탄으로 다가온다. 조선 중기의 선비 화가인 설곡 어몽룡이 그린 월매도 月梅圖이다. 만발한 꽃을 배제하고 강직하면서도 고아한 정취를 강조한 그가 매화향에 취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고목인 매화 등지 속에 반만년의 역사가 담겨 있고, 중간중간에 꽃을 피워내면서 높게 솟은 젊은 가지들 속에서 미래로 향하는 새 세상과 새 시대의 토대에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겹치는 설곡의 월매도에 희망을 품어 찬사를 보낸다.



또한 천 원권 지폐 뒷면에는 퇴계 이황이 낙향해 기거했던 곳을 그린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있고, 앞면엔 퇴계의 초상과 매화 그림이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화폐에는 매화 사랑이 담겨있다. 그의 위패를 모신 도산서원엔 지금도 매화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 퇴계의 매화 사랑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매화를 몹시 사랑하여 100수가 넘는 매화 사랑 시를 남겼다.

黃卷中間對聲賢 (황권중간대성현)
 빛바랜 책 속에 성현을 대하며
 虛明一室坐超然 (허명일실좌초연)
 텅 빈 밝은 방에서 초연히 앉아있네
 梅窓又見春消息 (매창우견춘소식)
 매화 핀 창가에서 다시 봄소식을 보내
 莫向瑤琴嘆絕絃 (막향요금탄절현)
 거문고를 보며 줄 끊겼다 한탄 마라

이 시는 부인과 아들을 잃은 후 부임했던 외로운 단양군수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관기 두향을 생각하며 지은 시로 추정된다. 유교적 법도에 충실했던 그에게 매화를 닮은 젊은 여인을 향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남녀 사랑 이야기는 마음을 설레게 한다.



어몽룡, <월매도>, 국립중앙박물관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69세 퇴계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애뜻한 사랑을 느낀다. 이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매화도를 그릴 때면, 퇴계가 두향에게 써준 흑애일매感愛一梅(매화 한 그루를 몹시 사랑함)를 읊조려본다. 퇴계 사후 두향은 이 서지書紙로 얼굴을 감싸고 남한강에 투신했다고 한다.

2022년 임인년의 매화 그림은 나에게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었다. 10여 년 전부터 문인화를 계속 배워오던 중에 소치 허련의 고향인 진도군에서 주최한 ‘소치미술대전’에 출품했던 청매도가 최우수로 선정된 덕분이었다. 소치의 이름으로 개최하는 시상식에 참여하는 만큼, 진도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가장 먼저 그의 흔적을 찾아 윤림산방을 방문했다.

윤림산방은 소치가 49세에 한양 생활을 접고 말년에 고향 진도에 들어와 그림을 그리고 저술 활동을 하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화맥 직계 5대째 200년을 잇고 있다. 1982년 소치의 손자 남농 허건에 의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전시관에서 소치와 그 후예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윤림산방

소치는 20대에 해남 대둔사(현 대흥사) 초의선사에게 학문을 익히고, 추사 김정희 문하에서 서화를 배워 남종화의 대가가 되어 시, 서, 화에 뛰어난 삼절三絶이라 칭송받았다. 스승인 추사 김정희조차도 “압록강 동쪽에는 소치를 따를 자가 없다. 나보다 낫다.”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강한 느낌을 주는 갈필 산수가 주를 이루지만 노송, 노매, 모란, 괴석 등 문인화 또한 일품이다. 그가 그린 매도梅圖에는 그만의 독특하고 호방한 필치가 잘 드러나며 문인화의 지향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앞보다 꽃이 먼저 나와 봄을 알리는 보춘화報春花인 매화꽃은 엄동설한을 견디고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 생명력으로 인해 예로부터 시인이나 묵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나 또한 매화를 그리게 된 인연으로 소치와 퇴계와 설곡과 같은 위대한 묵객들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매화꽃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 🌸

장옥규 회원



장옥규, <매화도>



허련, <목매>
© 한국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원



어람용(좌)과 분상용(우) 『현종국장도감의궤』

왕의 책 외규장각 의궤를 만나다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필요하면 그림으로 설명하는 의궤儀軌를 제작했습니다. 발행 부수는 4~9권이 일반적이었는데, 그중 한 권은 임금님께 올리는 어람용으로 제작하였고, 나머지는 분상용으로 관련 기관이나 지방의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왕이 절대 볼 수 없는 실록과 다르게 어람용 의궤는 후대에까지 왕들이 열람하고 참조하여 예치의 규범으로 삼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지녔습니다. 장례와 가례, 세자 책봉과 왕비 책봉, 나아가 궁궐의 중수, 어진의 제작, 충신의 공을 기리고 친경의 모범을 보이는 행사 또한 의궤 속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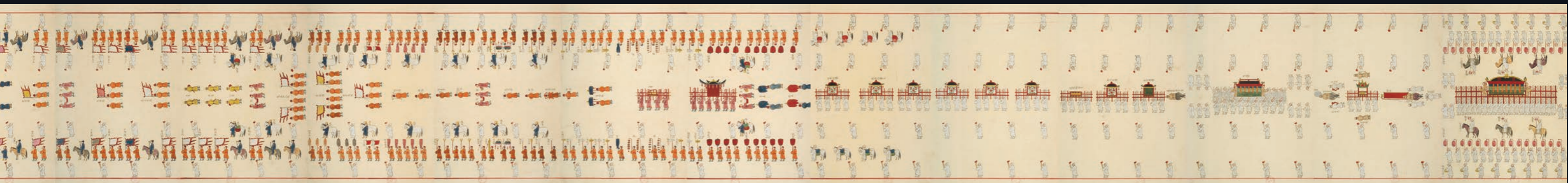
전시실은 사방이 나무 선반입니다.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 둔 이곳은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내부가 어떠했을지 상상하게 해 줍니다. 왕의 책, 어람용 의궤는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50cm 내외의 흰칠한 키에 35cm 안팎의 넉넉한 폭은 글 뿐 아니라 풍부한 그림을 담기에도 충분합니다. 책지는 최고급 종이인 초주지를 사용하였고, 책의 표지는 대부분 초록색 비단옷을 입혔으며, 황동 변철과 국화동으로 단단히 묶은 다음 원환을 달아 장식했습니다. 이 동그란 손잡이는 어린 시절 한옥이었던 친가에 가면 보던 여닫이문의 손잡이와 똑같이 생겨서 정겹습니다. 그리고 보니 의궤 한 책이 하나의 문인 셈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 굴속에서 만난 작은 문처럼, 조선시대의 어느 중요한 날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중 하나의 문을 열고 발을 내디뎌봅니다. 『효종국장도감의궤』에는 효종의 발인 반차도가 총 30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창덕궁 선정전에 5개월 동안 모셨던 효종의 혼백함과 재궁梓宮을 받들고 묘소로 가는 행렬은 6,0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영릉이 여주에 있었으니 거리를 고려하면 깜깜한 새벽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행차가 지나가는 지역의 담당 관원이 앞서 나아가며 길을 정비했고, 그 뒤로 한성판윤, 예조판서, 호조판서, 대사헌이 말을 타고 따릅니다. 행렬의 양쪽에는 횃불과 망축望燭을 든 봉거군과 망축군이 각각 480명씩 수행합니다. 관리들 뒤로 시위 군사와 길의장吉儀仗이 뒤따릅니다. 길의장은 돌아가신 국왕이 평소 행차에 사용하던 깃발, 악기, 의물 등을 뜻하며 행사 주인공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행렬 전반부의 중심에는 왕의 혼을 모신 가마인 신연이 위치합니다. 생전에 국왕이 계시던 자리에 왕의 혼백이 자리하고 장례 행렬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 뒤로 흥의장이 이어집니다. 상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죽산마竹散馬, 죽안마竹鞍馬, 만장輓輦 등을 들고 뒤따릅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방상시方相氏는 모두 네 명인데, 곰 가죽을 두르고 무서운 가면을 쓰고 무기를 휘두르며 상여 앞에서 불길한 기운을 쫓아냅니다. 이들은 묘소에 도착하면 관을 묻을 구덩이의 네 귀퉁이를 무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시실 전경

로 내리치며 악귀를 쫓아낼 것입니다. 죽산마, 죽안마, 만장은 장례 후에 불태울 것입니다. 줄줄이 이어진 가마에는 사람이 탄 것이 아닙니다. 부장품인 명기, 망자의 존호를 새긴 도장, 시호와 업적, 덕행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시책, 애도문 등이 그 안에 실려 있습니다. 그 뒤로 마침내 관을 실은 대여가 나타납니다. 그림에는 대여를 멘 가마꾼이 116명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218명씩 여러 번 교대하여 운반했습니다. 대여 주변에는 평소 왕을 가까이 모신 궁인, 내시, 승지, 사관들이 차례로 대열을 이룹니다. 이어서 궁인 스무 명이 가리개로 얼굴을 가리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며 곡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고삐를 잡고 가는 마부들은 그리기를 생략했나 봅니다. 뒤로 다시 관리들과 시위 군사가 지나가면 행렬은 끝이 납니다.



〈발인반차도〉 길의장, 『효종국장도감의궤』

〈발인반차도〉 흥의장과 대여, 『효종국장도감의궤』



정조 왕릉 명기와 효종 시호 옥책

긴 장례 행렬이 걸어서 지나가는 동안 주변에 모여들었을 백성들을 상상해 봅니다. 창덕궁에서 여주까지 걸어서 가려면 스무 시간은 족히 걸렸을 겁니다. 중간에 멈춰 쉬고, 먹고, 자면서 장지에서 매장 의례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행렬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데 못해도 사흘은 걸렸을 듯 합니다.

박물관 누리집에 들어가 의례를 열람해 봅니다. 주제별 분류에서 국장, 예장 부문으로 들어가니 『효종국장도감의궤』가 찾아옵니다. 반차도와 함께 본문 전체가 페이지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제 페이지에는 의례 편찬이 국장을 마친 후 1659년 11월부터 2월 25일까지 사역원 내에 의궤청을 설치하여 이루어졌다고 나옵니다. 임금님만 열람하시던 어람용 의궤가 보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확인하니 감격스럽습니다.

이번에는 가례를 보여주는 문을 열어봅니다.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는 1759년(영조 35) 영조와 정순왕후 김씨의 혼례식 과정을 기록한 의궤입니다. 의궤 속 친영 반차도는 영조가 어의동 별궁에서 친히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친영 의식을 행한 후 왕비와 함께 동리연(同牢宴)을 하기 위해 대궐로 가는 행렬입니다. 최고의 화원들이 최상의 안료를 써서, 드문 부로 정교하게 행렬을 재현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재미도 이려한데, 실제 왕과 왕비의 혼례 행렬을 구경하기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을까요? 어의동 별궁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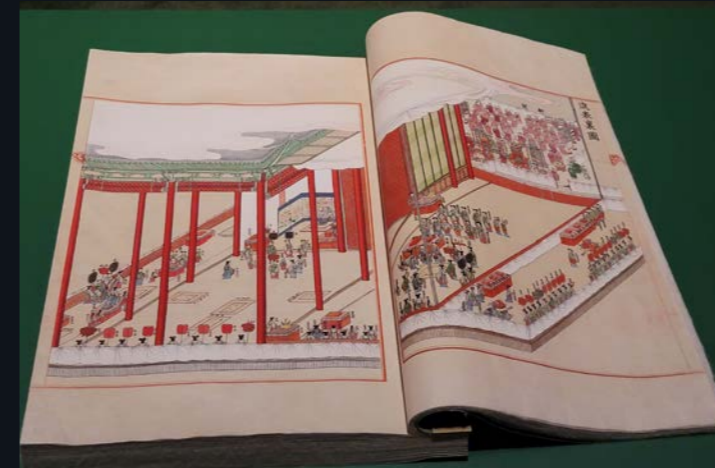
치를 조사하니 현재는 종로구 연건동 195-11에 그 터를 나타내는 비석만 남아 있습니다. 창덕궁에서 10분 거리나 될까 싶은데, 너무 가까워서 행렬의 꼬리가 출발도 하기 전에 머리가 도착할까 염려됩니다. 민간에도 친영을 장려하고자 했더니 백성들이 실컷 구경하라고 길을 조금 돌아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반차도는 실제 행사 참여자들에게 자리 배치를 숙지시키기 위해 초안을 미리 제작하여 왕에게도 올리고 예행연습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물과 기물들이 늘 예외 없이 질서 있게 움직였을지, 실수는 없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종실록에는 태종이 건원릉으로 행차할 때 병조 좌랑 박 서생이 반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렬을 이탈해 앞으로 나아갔으므로 사간원에서 왕에게 그의 파직을 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의궤들은 사대부의 나라 조선이 이룩한 기록 문화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과 성을 쏟아부어 의궤를 제작하고 소중하게 봉안했을까요? 일차적으로 행사의 주인공들에게 의궤는 특별한 날의 기억을 영구



외규장각 의궤,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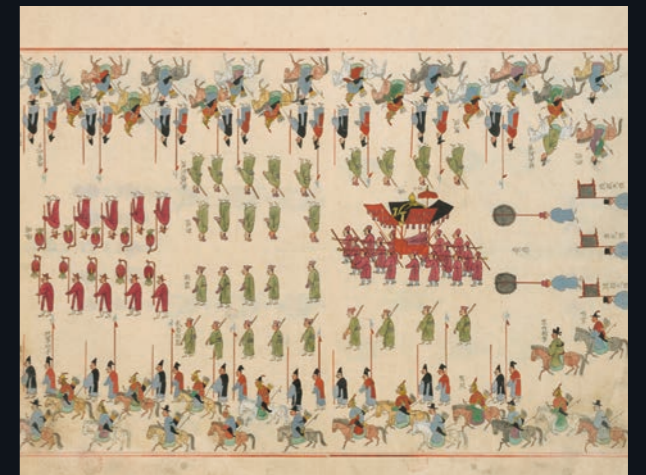


<진표리도>,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복제본

히 보존하는 기념 앨범이었습니다. 『기사진표리진찬의궤』는 1809년 순조가 할머니 혜경궁 홍씨의 관례 60주년을 축하하며 열었던 왕실 잔치의 면면이 오색찬란하게 실려 있습니다. 스무 살의 순조는 할머니의 덕을 칭송함과 동시에 효도할 시간이 짧은 것을 아쉬워하며 자신과 할머니를 위해 어람용 의궤 2본을 제작하도록 명하였고, 규장각 보관용으로 1본이 더 제작되었습니다.

의궤는 흔히 받는 오해와 달리 상자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고귀한 의미를 생각하면 보물 상자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문명국 조선의 유전자가 문자와 그림이라는 형식으로 지극히 아름답게 응축되어 있으니깐요.

황문영 회원



<친영반차도> 중 국왕의 행차,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의궤의 의미는 개인의 차원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왕의 권위, 왕실의 위엄, 그리고 예를 갖추어 모범으로 이끈다는 참으로 고상한 통치 철학을 백성에게 인식시키려면 의식이라는 그릇에 담아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식은 항상성과 반복으로 위상이 더해졌으며 나라를 지탱하는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 정체성의 재학습이 있었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난리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지 않고 왕조가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헌가도>,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복제본

아이들과 함께 한 문화재 수업

역사를 주제로 중학생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눈 교직 생활을 2021년에 마무리했다. 그동안의 역사 수업에서 내가 만났던 아이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나중에도 그 관심이 지속되어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문화재 수업은 아이들의 장난스럽고, 엉뚱하고, 때로는 창의적인 반응 때문에 많이 웃고, 생각하고, 때로는 다른 시각에서 문화재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해 여름방학, 너무 더워 바람도 쐬 겸 집 근처 행주산성으로 향했다. 땀을 흘리면서 행주산성 정상에 도착했다. 한강을 바라보며 맞는 시원한 바람은 한 학기의 힘듦을 조금은 날려 주는 것 같았다. 땀이 식은 후 주변을 돌아보다 '행주대첩 기념관'에 들어갔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관람객은 거의 없었고, 기념관 한구석에 초등학교 4~5학년 정도의 남자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분만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그런데 아이와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이는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고, 엄마는 화가 난 듯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빨리 안 쓸 거야?" 아이는 발을 흔들면서 계속 수첩과 연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난 금방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의 방학 숙제는 박물관 또는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



농경문 청동기, 국립중앙박물관

는 일일 것이다. 아마 나도 저런 상황을 만든 사람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 아이에게 행주산성은 어떤 곳으로 기억될까?', '저 아이는 어른이 된 후 이곳을 다시 오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나의 문화재 수업을 돌아보게 되었다.

학년 초의 분주함이 지니고 조금 안정된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청동기시대 수업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문화재가 '농경문 청동기'다. '농경문 청동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긴 깃털을 꽂은 채 따비로 밭을 일구는 남자와 꿩이를 치켜든 인물, 그리고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고 있는 인물을 찾아보라고 한다. 다른 면에서는 나무 끝에 새가 앉아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 열심히 찾고 있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다. "그런데 이 물건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던 걸까?" 아이들은 참새 떼처럼 재잘거린다. "방패요.", "문고리요.", "목걸이요." 등등... 아이들이 한참 이야기한 후 내가 조용히 이야기한다. "자를 한번 꺼



농경문 청동기, 국립중앙박물관



행주대첩비 ©문화재청

내 볼래?", "이건 길이가 7.3cm, 너비가 12.8cm, 두께가 1.5cm란다.", "에게게", "뭐?" 아이들은 조금 당황한다. 아이들은 다시 묻는다. "그럼, 뭐에 쓰는 거예요?", "응,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황당해한다. "지금까지는 당시의 우두머리, 족장의 몸에 달았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있어.", "혹시 모르지. 학자들의 연구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질지도..." 아이들은 다시 한번 의혹의 눈으로 '농경문 청동기'의 사진을 본다.

조선 후기를 공부할 때쯤 되면 아이들은 청동기시대를 배울 때와는 다른 아이들이 된다. 키도 많이 자라고, 그 무서운 사춘기의 절정 또한 조금 벗어나게 된다. 수업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난다. 단원 김홍도의 <서당> 그림에 관한 대화를 보면 이런 변화를 조금은 엿볼 수 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한 후 간단한 질문을 한다. "몇 명의 사람이 있니?", "무엇을 하는 모습이니?", "사람들의 옷과 머리 모양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아이는 왜 울고 있을까?" 한 아이가 답한다. "숙제 안 해서요.", "선생님께 맞아서요." 그런데 다



김홍도, <서당>, 『단원풍속도첩』, 국립중앙박물관

큰 아이가 시큰둥하게 답한다. “재 왕따예요.” 난 조금 당황하면서 “왜 재가 왕따니?”, “재는 울고 있는데 친구들은 모두 웃고 있잖아요.” 난 잠깐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교사로써 해명해본다. “모든 친구가 웃고 있지만, 훈장 선생님은 우는 아이를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 마음이야.” 아이들은 동의 반, 야유 반으로 “우우” 답한다.

풍속화와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그림은 민화다. 민화를 공부할 때 난 그림 속에 나타난 당시 사람들의 소망을 추측해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호작도>는 민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고, 당시 서민들의 소망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소재다. 아이들에게 <호작도>를 살펴보게 한 후 느낀

점을 말해보라고 한다. “까치와 호랑이가 있네요.”, “만화 같아요.”, “호랑이가 웃기게 생겼어요.” 등등.

그리고 질문을 한다. “까치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렸을까?”, “호랑이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렸을까?” 물론 난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즉 까치는 ‘좋은 소식’을,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벽사辟邪’를 의미하며, ‘새해 이 그림을 걸어서 나쁜 기운은 없애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소망했다.’는 정답(?)을 원했다. 그런데 정말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답이 나왔다. “연고대 합격하는 거요.” 난 잠시 당황했고, 그 대답을 이해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아! 이 아이는 호랑이가 고려대학교의 상징이고, 까치는 독수리로 보고 연세대학교의 상징이라고 보았구나.’ 아주 기발하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씩씩한 기분으로 “그래, 요즘이라면 그런 것을 소망할 수도 있겠네.”

문화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문화재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문화재를 한 점 정하고, 그 문화재에 대해 열심히 조사·연구한 후, 외국인 친구에게 설명하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을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문화재를 스스로 선택,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을 많은 아이가 좋아해 교사로서 보람도 느꼈다.

이 수업 중 잊히지 않는 일이 있었다. 프로젝트 수업은 2007년 1, 2학기에 했고, 결과 발표는 2008년 2월에 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2008년 2월 10일 저녁 뉴스로 송례문 방화 소식을 들었다. 어느 정도 훼손은 생각했지만,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 남긴 채 대한민국 국보 1호, 송례문이 전소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착잡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

다. 조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와 교무실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복도 저쪽 끝에서 한 아이가 뛰어왔다. 내 앞에 온 아이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눈물이 고인 모습으로 말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왜, 무슨 일이야?”, “제 문화재가 어제 사라졌어요.”, “뭐라고?”, “제 문화재요, 제 문화재가 남대문 아니 송례문인데요. 어제 없어졌어요. 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불난 사람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남대문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제가 자세히 보고, 조사해봤거든요.”



작가미상, <호작도>, 국립중앙박물관



송례문 화재 ©문화재청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의 문화재 수업이 어떤 아이에게는 재미없고, 의미 없는 수업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아이에게는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지식을 쌓고, 이해하는 것보다 ‘생각과 태도의 변화’라고 한다면 저 아이에게 문화재 수업은 분명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했다. “괜찮아. 송례문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공부한 송례문은 너에게서 없어지지 않아.”, “송례문이 사라져 원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송례문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오늘도 난 박물관에 강의를 들으러 간다. 박물관에는 여전히 많은 아이가 떠들고, 뛰고, 엉켜서 놀고 있다. ‘애들아, 이곳을 재미있고 즐거운 곳으로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끔은 의미도 발견하렴. 나중에 너희의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에 와서, 이곳이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는 곳인지 이야기해주는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

박상혜 회원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

길대,
진흙,
쌌기 문자

나일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과 더불어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언제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대의 영웅 신화 『길가메쉬 서사시』는 어느 신화보다도 흥미진진하고, 아슈르(앗슈르*), 니네베(니네베), 바빌론(바빌리) 같은 옛 도시, 아슈르바니팔(앗슈르바니아플리), 네부카드네자르(나부쿠두리우쭈르) 같은 고대 왕들의 이국적인 이름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쌌기 문자로 가득한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을 접할 때면 수수께끼 같은 고대 언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독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뉴욕으로 여행을 갔을 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온 관람객이 넘쳐서 고대 근동관은 제대로 감상을 못한 채 시간에 쫓겨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공동 기획한 메소포타미아 유물 특별 전시 소식을 접했을 때 반가움이 컸습니다.



승계와 상속에 관한 대화를 기록한 문서,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86.11.167)

* 괄호 안은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 전시의 표기를 따른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외래어 고유명사 지명과 인명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공용어 중 하나였던 약카드어 원어에 가깝게 발음한 것입니다.

전시장을 찾은 날, 입구에 물고기 모양처럼 보이는 커다란 쌌기 문자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이라는 전시명을 보았습니다. 이 문명의 특유성과 그에 대한 예찬이 담긴 근사한 제목이라 느꼈습니다. 나중에 쌌기 문자가 '언어'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전시 디자인이 감각적이라는 감상 이상으로 전시명의 의미가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결투 장면을 새긴 원통형 인장,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1999.325.4)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 전시는 문화 혁신, 예술과 정체성, 그리고 제국의 시대 이렇게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1부의 유물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봉헌용 그릇이나 원통형 인장 등의 유물도 특별했지만,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건 메소포타미아의 기록 유산인 쌌기 문자로 가득한 점토판이었습니다. 교과서나 미디어에서만 접했던 점토판 실물을 보니 신기했고, 거기 담긴 고대인들의 인간적 삶과 소망까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점토판에는 벨-카찌르라는 남자가 아버지와 나는 대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있는 여성과 재혼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양자로 삼아도 되는지 아버지 나디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입양한 아이가 가문을 계승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우려하였는지, 오직 친자만 집안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이국에서도 가문과 재산의 승계 문제는 지금, 여기와 다름없이 민감한 사안이었던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실물 점토판 외에도 전시장 내부 미디어 큐브에 나오는 9개의 QR 코드를 통해 다른 점토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좀체 자지 않고 말뚱말뚱한 아이가 어서 잠들기를 바라는 애타는 어머니의 자장



미디어 큐브에 나타난 쌌기 문자



우르 왕실묘 출토품,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가나 아들을 잘 봐 달라며 담임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선물을 드리고 식사를 대접했던 아버지의 일화는 수천 년 전 이야기임에도 우리들 삶의 모습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또 집에서 빈둥거리는 아들에게 학교 가서 할 일을 말해 준 후 한 번 복창해보라는 아버지와 나중에 하겠다는 아들의 대화는 티격태격하는 부자가 마치 눈앞에 있는 듯 생생하게 그려져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2부의 전시품인 우르 왕실 묘에서 발굴된 목걸이는 청금석과 순금의 색상 조합이 무척 예뻐했습니다. 찬란한 보석으로 치장한 왕실 여인의 미모는 더욱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말 두 필을 끌고 가는 외국인 마부를 묘사한 유물도 인상적입니다. 전시 포스터에도 등장한 이 부조는 아슈르 왕국에 조공을 바치는 외국 사절단을 양각한 것인데, 공들여 표현한 마부의 머리카락이나 수염, 화려한 말 장식의 사실성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번 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유물은 바로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바빌리의 나부쿠두리우주르 2세)가 만든 '사자 벽돌 패널' 2점이다 싶습니다. 3부의 전시품인 이 패널들은 원래 고대 바빌론 성벽의 8개 문 중 하나였던 이쉬타르 문에서 성 외부의 신전까지 가는 '행렬의 길' 양쪽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벽돌 위에 구현된 오묘하고 아름다운 푸른색과 이쉬타르 여신을 상징하는 사자의 커다란 몸통과 풍성한 갈기의 생동감 넘치는 입체적 표현이 놀라웠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전시명이 왜 얼핏 유사해 보이는 문명의 땅이나 문자의 땅이 아닌 '기록의 땅'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전에서 쓰였다는 테두리가 비스듬한 계량 그릇이나 원통형 인장, 썩기 문자를 적은 점토판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져 쓰임은 달랐지만 모두 기록의 도구였습니다. 계량 그릇은 정확한 양의 기록이고, 원통형 인장은 정체성에 대한 기록이며, 점토판은 삶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문득, 그토록 열심히 거의 모든 것을 꼼꼼히 사실적으로 기록했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삶을 사랑했던 진솔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유유히 흐르는 두 강을 따라 삶이 그저 흘러가 버리지 않기를 바랐기에 기록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신과 공동체에 의미 있는 내용을 무른 점토판에 썩기 모양 글자로 하나하나 찍어내는 장면을 상상하니 그 신중함과 진지함 속에서 그들의 신념과 철학이 보였습니다.



조공 행렬에 선 외국인 마부 부조 조각,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33.16.1)

갈대와 진흙으로 빚어낸 기록이 벽돌처럼 한 장, 한 장 쌓여 문명을 이루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가까이 다가가는 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래전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 기쁨과 소망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 찬란한 고대 문명 속 다채로운 삶과 예술이 가득한 전시입니다. 🌍

방성아 회원



사자 벽돌 패널,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31.13.1)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오늘도 그 미소를 보았다

서해 쪽이나 충청권을 방문할 때면 자주 찾곤 하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전생에 백제의 석공이었나? 아니면 백제 불자였나? 짝꿍은 '백제인의 미소'라는 이 마애여래삼존상을 그리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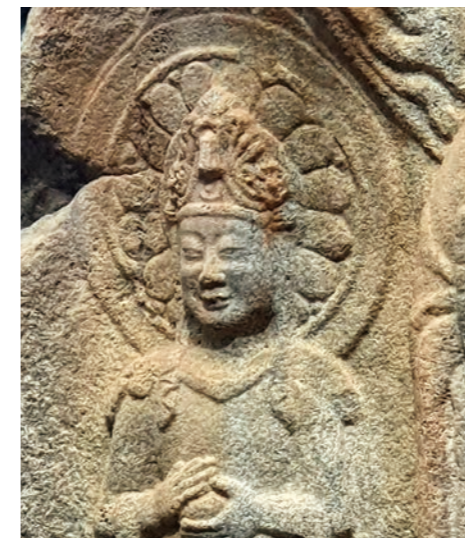
이 불상이 자리 잡은 서산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요건을 갖춘 고로, 백제시대 중국과의 교역항 역할을 톡톡히 한 곳이다. 공주, 부여와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 왕래하는 이들이나 물자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사찰과 불상들이 서산 일대에 유난히 많은 이유인 듯하다. 이곳 서산의 마애여래삼존상에도 많은 무역상, 보부상들이 이 길목을 지나며 간곡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이 귀한 마애상은 1959년이 되어서야 근처에 있는 보원사지 유물 조사팀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고, 1962년 드디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세상이 그 가치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중앙에 산신령과 양쪽에 본처와 첩을 새긴 재미난 조각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석불 중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은 그 미소가 자애로움과 살짝 개구진(?) 모습, 그리고 낭만적이며 온화함이 가득하여 백제인의 기질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고 한다.

이 삼존불상은 중앙에 여래입상, 우측에 반가사유상, 좌측에 보살 입상이 있는 구성으로 조각되어 있다. 본존인 여래입상은 둥근 얼굴과 큼직한 이목구비에서 먼저 나오는 미소가 넉넉함과 인자함을 느끼게 해준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구부린 손의 모양은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이라고 한다. 좌측에 있는 4등신의 작은 입상은 복식이 화려하며 두 손으로 약합을 소중히 쥐고서 연꽃 대좌 위에서 있다. 우측의 반가상은 귀엽게 웃는 어린아이의 천진한 모습으로 뺨을 한 손으로 괴고서 한쪽 다리는 접고 앉은 여유로운 형상이다.





지면 암벽에 부조나 선각으로 완성한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불... 그 오랜 세월, 옥외에 노출된 상태로 어찌 이리도 보존이 잘 되어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아늑하게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비바람을 최소한으로 접한 이유도 있을 터이고, 지역민들의 애정 어린 보살핌도 큰 보탬이었을 듯하다.

이정표가 없다면 지나치기 십상인 그런 곳에 소박하기 그지없이 자리한 삼존상은 그 오묘한 미소로 우리의 발을 묶어 놓기에 충분하다.

빛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상황에 따라 달리 보이는 불상들의 미소로 방문하는 계절, 시간대 그리고 날씨에 따라 다양한 감흥을 느낄 수 있으니 정말로 경이롭고도 신비롭다.

관람객이 많지는 않아서 늘 고즈넉이 멍때리며 서 있다 오는데 가끔은 기도하시는 스님의 조용한 불경 소리, 목탁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어딘가에 내가 서 있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귀한 보물을 탄생시킨 백제의 신심 깊은 예술가에게, 지금껏 이리도 잘 보존해온 지역 조상님들께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다. 오늘도 또다시 새로운 감동을 안고 발걸음을 돌린다.

번뇌의 근원은 욕망이다! - 석가모니 🙏

이은정 회원

나의 고향은 서울이다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국립중앙박물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 첫날, 고향을 생각한다. 어린 아이들이 때때옷 입고 세배를 하고 연날리 기하는 모습과 함께 부모님을 떠올린다.

고향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장소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따지자면 내가 태어난 곳보다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더 길다. 나의 고향은 도시일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고 설날이면 잘 익은 김장 김치로 만든 만두가 들어간 만둣국이 별미였던 시골이 맞을까?

탄생지와 주거지가 멀리 떨어진 채 긴 세월이 쌓여가는 경우 어디가 고향일까 묻게 되는 건 나만이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 기증관에는 그리스에서 온 청동 투구가 전시되어 있다. 약 8600k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청동 투구가 대한민국 서울에 오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이 투구는 약 2600년 전, 우리의 고조선 시대 즈음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 투구는 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례에 쓰였는지,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1875년 제우스 신을 모신 신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의례용일 가능성이 더 크다.



결승선에 1등으로 도착한 손기정 선수 옷에 그려진 일본 국기를 가지고 있는 시상식 장면 돌려받은 청동 투구를 쓰고 기쁘게 웃는 모습
※ 사진제공 | 손기정기념관

눈과 입 부분을 제외하고 사람의 머리처럼 동그런 형태에 목과 어깨선을 따라 양옆으로 날개가 펼쳐지는 모습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신전이나 기념비에 그려진 모습과 일치한다. 게다가 원형에 가까운 보존 상태이기에 유물로서도 학술 가치가 높다고 한다.

1936년 이 투구는 당시 그리스 최대 신문사인 브라디니에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위원회에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선물로 기증되었다. 이 내용은 투구 안에 자세히 적혀있다. 초기 올림픽에서는 올림픽의 꽃 마라톤 우승자에게 실제 그리스 유물을 선물로 주는 일이 하나의 관례였다.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단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땀다. 가장 높은 단상에 오른 금메달리스트는 고개를 푹 숙인 채다. 나라 잃은 슬픔에 가슴에 단 일장기가 서

러웠던 그는 꽃다발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다.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1936년 8월12일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보도사진에서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 속 일장기를 지워버렸고, 일본 관헌은 이를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의 무기정간과 조선중앙일보의 자진 휴간이 일제의 언론 탄압 속에서 표출된 항일의지의 대가였다. 청동 투구도 우리의 손기정 선수가 서 있던 그 장소 어딘가에서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연히 우승자인 손기정 선수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야 했던 청동 투구는 귀국한 그의 손에 없었다. 독일 올림픽 위원회의 “아마추어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따로 선물을 준다는 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억지와 공식적으로 “키테이(Kitei) 손(Son), 저팬(Japan)”이라고 불리는 일본 선수




투구 속 독일어 기록
 윗줄 : 아테네 일간신문 브라디니가 마라톤 경기 우승자에게 1936년 베를린 제11회 올림픽 아랫줄 : 코린토스 양식 헬멧 올림픽 경기 전성기인 기원전 6세기에 제작 올림피아에서 발견

이지만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의 선수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반갑지 않았던 일본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마라톤 우승자의 특별한 영광이었던 청동 투구는 그렇게 주인을 잃고 있었다. 1975년이 되어서야 베를린 올림픽 40주년 기념사진에서 청동투구가 손기정 선수의 눈에 띄게 된다. 그러나 40년 만에 존재를 알게 된 청동 투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던 노수웅씨의 노력으로 투구의 행방이 밝혀졌다.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을 세운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의 것”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베를린의 샤를로텐부르크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었다. 이후 손기정 선수의 노력과 그리스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1986년 베를린 올림픽 50주년에 정식으로 손기정 선수에게 돌아오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온 청동 투구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긍지를 높이고 희망과 용기를 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구 유물 중 최초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손기정 선수는 “이 청동 투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1994년 대한민국에 기증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에서 청동 투구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청동 투구를 바라보니 여러 생각이 든다.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값진 우승을 한 후 친구에게 보낸 엽서에는 “슬푸다”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다. 우승자의 영광도 맘껏 누리지 못한 식민지 나라의 선수는 이제 없어야 한다. 청동 투구가 주인을 찾아가는 긴 여정 속에서 일어난 많은 우연과 손기정 선수를 비롯한 많은 분의 노력을 생각한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청동 투구를 잘 보존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이란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면서 그리스에 대해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 느껴진다.

이제 청동 투구의 고향은 그리스가 아니라 서울이다.  이명숙 회원



기증관 투구 전시실 전경

조선의 나전함 돌아오다

-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친구들(YFM),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함 기증 -



나전함, 조선, 31.0 x 46.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23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친구들은 조선 나전함 1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 나전함은 조선 16세기 나전칠기 공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이 기증품과 매우 유사한 조선시대 나전함으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전함 1점과 동경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 중요문화재 나전함 1점 등 4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에 제작된 나전칠기는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이번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친구들의 기증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 함은 31.0(세로)×46.0(가로)cm 정도로 귀중품이나 문방구 등을 보관하는 용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칠을 하기 전 함을 식물로 싸, 습기로 나무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는 주로 고급 칠기를 제작하는 데에 사용된 기법이다. 상자 전체에 여러 모양의 나전 연꽃들이 짝 차게 배열되어 있으며, 꽃장식을 동그랗게 감싸듯 배치된 넝쿨 줄기, 잎사귀 그리고 띠엄띠엄 들어간 칠보문이 그 화려함을 더한다. 나전함 뚜껑의 네 변과 각 모서리는 촘촘한 나전 장식으로 마무리하여 정돈된 느낌을 준다. 장식을 위해 나전 조각을 이어 붙이는 타찰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밝은 갈색빛의 바탕 칠색이 조선시대 나전칠기의 자연스러운 맛을 보여준다.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친구들(YFM)은 우리 관에 문화재를 기증하여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를 적극 환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화재 기증에 힘쓰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했다. 🌍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회 박물관강좌 안내

◉특강: 박물관에서 떠나는 유럽 도시 여행

국립중앙박물관회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박물관에서 떠나는 유럽 도시 여행’은 4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도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대표적인 음악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모집 안내

모집인원: 500명

모 집 일: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1만 원 (기부·특별회원 및 2023년 사회교육 2강좌 이상 수강생: 16만 원)

신청문의: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 (02-2077-9790~4)

강의일정

날짜	내용
6월 2일	런던 · 엘가(Elgar), 퍼셀(Purcell), 헨델(Händel), 케텔비(Albert W. Ketelbey) 등
6월 9일	바이마르와 라이프치히 · 바흐(Bach), 슈만(Schumann), 리스트(Liszt), 멘델스존(Mendelssohn) 등
6월 16일	빈(제국의 도시) · 모차르트(W.A.Mozart), 슈베르트(Schubert), 브람스(Brahms) 등
6월 23일	안달루시아(스페인) · 타레가(Tárrega), 사라사테(Sarasate), 비제(Bizet) 등

◉정기답사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기답사는 1975년 경주답사로 시작하여 매달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가 직접 살펴보고 답사하고 있습니다.

차수	날짜	답사지역
470회	3월 17일(금)	인천 강화 (광성보, 전등사, 고려궁지, 강화 고인돌)
471회	4월 21일(금)	강원 삼척 (죽서루, 해암정, 추암, 척주동해비)
472회	5월 19일(금)	충남 서산 (서산마애불, 보원사지, 태안마애불)
473회	6월 16일(금)	경북 영주 (부석사, 흑석사, 가흥동 마애삼존상)
474회	7월 21일(금)	충남 부여 (대조사, 장하리삼층석탑, 무량사)
475회	9월 15일(금)	강원 춘천 (국립춘천박물관, 근화동 당간지주, 청평사)
476회	10월 20일(금)	전남 담양 (금성산성, 소쇄원, 개선사지 석등)
477회	11월 17일(금)	전북 전주 (전동성당, 경기전, 금산사)
478회	12월 15일(금)	강원 평창 (월경사, 상원사, 적멸보궁)

※ 답사 일정 및 답사지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사신청

신청접수: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9시부터 선착순 모집

참 가 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신청문의: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 (02-2077-9790~4)

국립중앙박물관회 박물관강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www.fnmk.org) 혹은 블로그(blog.naver.com/fnmk197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자 청화 양각 사슴 매화 사자 사각 연적, 백자실

깔깔깔

나는 뛰노는 사슴
그럼 저기 절벽을 기어올라
나를 노리는 재는 누굴까?
누군 도마뱀 닮았다고 하던데
깔깔깔
재는 사자야, 아니 사자였어
매일 나를 노려보더니
어느 날 목이 툭 부러졌지 뭐야
연적이 깨져서 아쉬운 건 그들의 사정
나는 자유롭게 즐거워 가르륵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홍종인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김일환, 이대원, 김상만, 김성진, 정진숙, 김영수, 유상욱, 유창종, 김정태, 신성수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윤재륜 회장이 취임했다.

- 회 장** 윤재륜
- 부 회 장** 박은관 윤석민
- 상임고문** 신성수
- 당 연 직** 윤성용
- 이 사** 김석수 김신한 김현전 남수정 박선정 박선주 박진원 우찬규
유승희 이욱경 정용진 조현상 최두준 허용수 홍정욱
- 감 사** 김교태 김재훈
- 사무국장** 이재범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경 원 권준일,구재선 김교태 김남연 김대환 김승걸 김익환 김재훈 김지연 김지원 김현전 도형태 류지훈 박병엽 박선정 박영주 박용윤 성래은 송병준 송영숙 양홍석 우찬규 유상욱 이교상 이규식 이명희 이주한 이택경 임종훈 장선하 장인우 정명훈 정재분 조영준 최정훈 최철원 한혜주 허윤홍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주)슈퍼리어슈퍼리어홀딩스(주) 대표이사 사장 서룡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한세실업(주) 부회장 영풍제약 대표이사 (주)컨셉 대표이사 한세엠펙케이(주)대표이사 히든베이호텔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SB Investment 사장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아성다이스 부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그룹 부회장) 컴투스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컴투스컴투스홀딩스.위지웍스튜디오 의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대신증권(주) 부회장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서울가든호텔 사장 경신금융(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MashupAngels 대표 한미사이언스 사장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우스케이프 회장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이도/한강에셋자산운용(주) 대표이사/의장 MIGHT&MAIN(주) 사장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GS건설 사장	홍정혁 효 경	BGF 에코머티리얼즈 사장 회원	은관회원 강원기 권지혜 김영명 김민수 김영희 김은혜 김종한 남태훈 박경희 박경진 박선주 박영정 박지원 백진우 서재량 성필호 송 철 신병찬 심종현 유승희 유창종 윤현경 이상재 이수경 이우성 이정용 정은미 최웅선 함영준 홍정도 홍정인 홍진기 현지호 황정환	오리온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아이에스지주 전무 (주)예울 이사장 (주)삼익악기 스펙코 부회장 회원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주)종합전기 대표 국제약품 대표이사 (주)풍산주택 회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영은미술관 관장 V&S자산운용 상무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주)동성케미컬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삼보모터스그룹 사장 SGC에너지(주) 사장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블룸앤코 대표 (주)인팩 대표이사 (주)오뚜기 회장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메가박스중앙(주) 대표이사 마리오 아울렛 전무 (주)화승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회장 (주)케이지에프 전무
---------------------	--	--	------------	----------------------	---	--

청자회원 강승모 고기영 구동휘 구본권 구본상 구본욱 구본혁 구용수 구원경 구원희 구은성 국현영 권재현 권택환 김건호 김경영 김경희 김낙승 김녕자 김동관 김동준 김동철 김두식 김미원 김상윤 김성남 김성완 김세연 김영무 김영수 김영혜 김유석 김윤수 김인순 김재열 김정주 김중학 김지태 김태현 김태훈 김택진 김현강	KP그룹 부회장 (주)금비 부회장 LS ELECTRIC 대표이사, 부사장 LS MnM 전무 LIG 회장 (주)LK 대표이사 사장 에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닥터구의원 원장 (주)에스코홀딩스 과장 한성플랜지 이사 LS 네트웍스 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반도건설 부사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주)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회원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PWC-삼일회계법인 상무 (주)예울 명예이사장 한화 솔루전 대표이사 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주)서브린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회원 유리자산운용 부사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베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주)NXC 이사 서양화가 화성피앤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성신양회 회장 두원중공업 부사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글로벌 대체부문 부문장/전무 식플란트 치과병원 병원장 오로라월드 대표이사 오리온 상무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회원 아주호텔엔리조트 대표이사 회원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넵톤스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주)에이치케이이디 코리아 부사장 용인대학교 총장 회원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회원 시몬느 에프씨 대표이사
---	---

박준영 박혜준 박혜성 방정오 배윤식 봉 욱 서동임 설윤석 손원락 신연균 신영무 신창재 신춘수 양인집 양태희 어호선 오경희 오승민 오치훈 유동현 유영지 유진현 윤 관 윤보현 윤승현 윤일영 윤정선 이갑재 이규호 이기용 이만규 이미숙 이선진 이승용 이영순 이영자 이용균 이용진 이우일 이우현 이운경 이윤기 이인수 이재욱 이주엽 이준우 이지형 이철우 이학준 이혜진 이 혁 임지선 임재현 장동진 장선익 장성진 장승준 양현재단 전영채 전윤수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회원 (주)농심기획 상무 TV CHOSUN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변호사봉욱법률사무소 변호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VTI 파트너스 대표이사 회원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주)인성 사장 유급와당박물관 기획실장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BRV Capital Management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오름모빌리티 그룹 대표이사 사장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급도갤러리 관장 (주)에이티넵파트너스 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회장 알스케어 대표이사 (주)농능 경영총괄 사장 주식회사 유니드 부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대룡종합건설 상무이사 홍아해운 부사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GIO 회원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보해양조(주) 이사 (주)파워맥스 사장 동국제강(주) 전무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상무 매일경제 대표이사 부회장
---	---

정영수 정영해 정의선 정재호 정지이 정해인 조병순 조연주 조영미 조재현 조희경 주신희 진재욱 차가원 차원희 천석규 최선목 최성환 최세훈 최원준 최원영 최인선 최재원 최창화·정혜숙 최혜욱 최훈학 한국도로공사 한석현 한영재 허정석 허진수 허치홍 현명관 홍종일 호창성 홍범석 홍석표 홍원복,김근호 홍정국 홍진석 황인규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 management 대표이사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회원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회원 성암고서박물관장 한솔케미칼 부회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회원 (주)화요 부사장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하나유비에스 대표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원희 그룹 상무 천일식품(주) 대표 (주)조광건설 회장 SK네트웍스 사장 (주)카카오/카카오페이 보힘NewCo TF장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현영알코리스 파트너/전무 L Catterton 상무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 회원·자원봉사 (주)한국가구 대표이사 SM 엔터테인먼트 DJ/프로듀서 노루홀딩스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 파리크라상 사장 GS티데일 상무 회원 호성홍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백미당 사업본부장 고려제강 사장/전략기획본부장 회원 BGF 대표이사 사장 남양유업(주) 상무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	--

*2023. 2. 17.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 04383, Korea
전화 (02)2077-9790~5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